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완공

LS-L&F 배터리솔루션

새만금산업단지 공장 준공

국내 배터리 소재 자립화

국내 대표 대기업 LS와 이차전지 양극 소재 전문기업 L&F가 합작해 설립한 LS-L&F배터리솔루션(주)이 전북 새만금에 대규모 전구체 공장을 완공했다. 이번 준공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소재 자립화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산업단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전북특별자치도와 LS-L&F배터리솔루션(주)은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 현장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와 정경수 LS-L&F배터리솔루션(주) 대표이사, LS그룹의 구자은 LS그룹 회장, 허제홍 L&F 의장, 구동휘 LSMM 대표, 문명주 LS Metal 대표 등 LS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대거 참석해 공장 준공을 축하했다.

LS-L&F배터리솔루션(주)은 지난 2023년, 새만금 산업 5공구 4만 평 부지에 4,100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 제조공장을 건립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불과 2년 만에 결실을 맺은 이번 준공으로 새만금은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의 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전구체는 이차전지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필수 중간 소재다. 배터리의 용량·안전성·수명 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지만, 지금까지 국내 산업은 대부분 중국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공급망 불안정과 가격 변동에 따른 산업적 리스크가 상존했다.

새만금 전구체 공장의 가동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계열체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만 구축된 이번 합작투자는 중국 자본을 배제한 'K-Battery Alliance'의 대표적 모델로 꼽히며, 국가 경제 안보 강화와 배터리 소재 자립화를 동시에 이루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구자은 회장, 허제홍 의장, 구동휘 대표 등을 만나



지난달 30일 새만금산업 5공구 내 LS-L&F배터리솔루션(주) 공장 준공식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도의회 의장 및 정경수 LS-L&F배터리솔루션(주) 대표이사, LS그룹의 구자은 회장, L&F의 허제홍 의장 등 LS 계열사 주요 인사들도 참석한 가운데 준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하며, 이번 전구체 공장 준공을 받은 삼아 새만금 산단을 대한민국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준공식은 LS와 L&F가 협력해 전구체 국산화를 이뤄낸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새만금을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주)의 첫 시작을 군산시와 함께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준공은 단순한 공장 건립을 넘어,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새만금을 RE100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와 이차전지 특구를 아우르는 글로벌 신산업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100% 재생에너지 사용' 조건을 충족시켜, 다국적 배터리·소재 기업의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공장 가동 이후에는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산업은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만큼, 지역 대학·연구소·협력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심장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새만금에 건설되는 LS-L&F공장 준공을 계기로 "국내 배터리 소재 자립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새만금이 'K-배터리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구체를 비롯한 양극재·음극재· 전해질·분리막 등 배터리 4대 소재 기업들의 집적 효과가 커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공급망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LS와 L&F 역시 준공식 이후에도 후속 투자와 생산능력 확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새만금은 향후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전초기지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 군산=김만호 기자

추석 연휴 전북권 고속도로 '최대 혼잡' 귀성 5시간 25분 · 귀경 7시간 20분 예상

추석 전야 · 당일 귀성 · 귀경 차량 집중돼 정체 극심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전북권 고속도로가 예년보다 더욱 붐빌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에 오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7일간의 황금연휴 동안 귀성객과 나들이객이 몰리며 교통 혼잡이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추석 전야인 5일과 당일 6일은 귀성·귀경 차량이 집중돼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권 하루 평균 교통량은 약 36만 대로 평소 토요일(16만 대)의 두 배가 넘으며, 추석 당일에는 40만 대가 몰려 최대 혼잡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전주 구간 소요 시간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은 5일 귀성길은 최대 5시간 25분, 6일 귀경길은 7시간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귀성길은 10분 늘었지만 귀경길은 40분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혼잡을 달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서해안선과 통영대전선 일부 구간에는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가 운영되며, 모든 휴게소 직원 화장실이 일반 이용객에게 개방된다. 또 논산 졸음쉼터(양방향)에는 임시 화장실이 추가로 설치된다.

휴게소에서는 지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지역 특산물 시식 행사가 열리고, 오는 2일(목)에는 호남고속도로 익산미륵사지(순천방향) 휴게소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연휴가 길어 귀성객뿐 아니라 여행 차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출발 전 교통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장시간 운전 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꼭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청정 축산 기반 유지 '총력전'

전북자치도, 겨울철 가축질병 특별 방역대책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축 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앞두고 특별 방역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D),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사진)은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도에서는 선제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특별방역대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축산업이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청정 축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총력전'의 성격을 띤다. 도는 동물위생시험소 4곳을 비롯해 14개 시·군, 유관기관 3곳 등 총 22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



하고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예년보다 빠른 9월, 경기 파주에서 AI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방역 강도를 높였다. '철새→농장 유입→농장 간 전파'로 이어지는 전파 고리를 끊기 위한 3중 차단 전략이 핵심이다.

구제역 방역은 선제적 백신 접종과 함께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는 올해 9월에 전국보다 한 달 빠르게 일제접종을 마쳤으며, 10~11월에는 항체율이 저조한 농가와 자가 접종 농장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진행한다.

아울러 구제역 확산의 주요 위험 요인인 가축분뇨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기간 동안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

도축장, 공동차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 주요 축산관계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 정밀검사와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과 집유장은 월 1회 이상 검사를 강화한다.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역시 도내 유입 차단에 방점이 찍혔다. 올해 경기 지역에서 5건이 발생했고, 백두대간을 따라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계속 남하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도 발생이 여파에 따라 전북도는 남원, 완주,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포획과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양돈농가 575호에는 전담관 199명을 배치해 외부유폴타, 소독설비, 전설 등 8대 핵심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운영 실태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